

사람들은 현재에 살면서도 미래에 관심이 있으며 그들이 닥칠는지 미래를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갖고 있다. 그는 자기가 지어놓고도 자기가 모른다. 이는 불교적 인과 차를 배우거나 지은 일을 막았을 뿐이지 미래의 요행에 없는 것이다. 자기의 미래는 자기의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계행은 일체 선법의 근본”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 추대법회

총지종은 11월 18일 제8대 종령인 수성 대종사 추대법회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종단 스승님, 태고종 총무원장 윤산,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관음종 총무원장 흥교스님, 강남구청장 등 내외귀빈과 8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성황리에 봉행하였다.

수성 대종사 종령 추대법회는 법통이 운, 현화 및 훈행정공, 법통전수, 취임선서, 봉행사, 행장소개, 법어 순으로 이루어져 총지종의 법통과 법맥을 전수하는 자리로 장엄하고 웅장하게 진행되었다.

이날 법회에서 법공 통리원장은 봉행사에서 “본 종단은 창종 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오로지 종조 원정 대종사님과 원로 스승님들의 각고의 수행정진과 대원력으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법통이 창종 세대의 스승님에서 제2세대의 원로스승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전 종도들은 제2의 창종을 이루겠다는 정신과 마음으로써 종단발전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법홍포를 위하여 중대하고 책임이 있는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종령님으로 모신 수성 대종사님은 수행면에서나 실천면에서 어느 창종 원로스승님 못지않은 큰 스승님이십니다.

특히 종단이 어려울 때마다 중책을 맡으시어 슬기롭게 이끌어 가셨고, 종단 대조사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해오셨으며, 기로스승으로 현직에서 물러나 계시면서 한치도 변함없는 수행과 실천을 계획하지 않으심은 우리 모든 종도들에게 크나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취임불사는 단지 법회로 그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진전되는 자리가 되고, 종단과 우리 모두가 더욱 정진수행하고 발전되는 계



교계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이 동참하여 총지종 제8대 종령 수성대종사 추대법회를 봉축하고 있다.

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번 법회를 통해 수행면에 있어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변화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이 법회가 총지종의 행사만이 아니라, 한국불교에 청정수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서원하는 우리 모두의 법회이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수성 대종사는 종령의 법통을 전수한 후 최초의 사자후에서 “그간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따라 다양한 신앙형태가 전개되면서 더욱 청정한 수행정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조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법을 바로 세우고 철저한 계행을 견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된 도리로써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바는 첫째로 ‘승단의 화합’이고 둘째로 ‘승단 화합’입니다. 화합의 정신은 비단 우리 종단뿐

자들이 바른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바세계를 불국정토로 가꾸는 일은 우리 외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불자들의 땅에 있습니다. 바른 행으로써 불도(佛道)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2창종의 새로운 다짐

승단대토론회로 다각적인 여론수렴

총지종은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동안 서울 통리원에서 전국 스승님(정사, 전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창종을 다짐하기 위해 종단의 현황을 설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시대의 변화속에 적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교화방법의 개발과 종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승단총회에서는 현 법공 통리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운 통리원장의 선출과 재임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법공 통리원장은 전 혜암 통리원장의 잔여임기로 취임을 하였기 때문에 1년 2개월동안 통리원장의 임기로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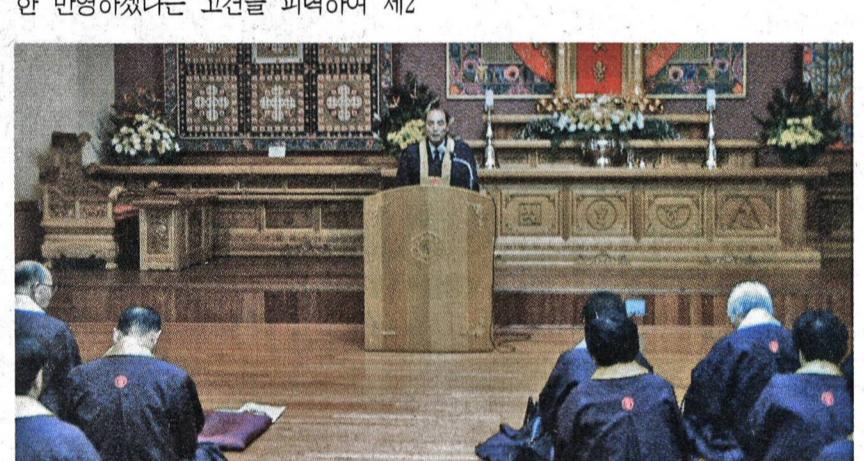
또한 현재 시무교육을 마무리한 11명의 인사이동과 맞물려 종단의 혁신과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승단총회에서 인사이동시 희망지역과 스승

본인은 총지종단의 사법(嗣法)과 전법(傳法)을 관掌하는 수장으로서 최우선의 일성(一聲)은, 내실(內實)을 기하자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내실이란 조직과 체제의 외형적 발전에 있지 않습니다. 몸과 정신을 새롭게 기다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행과 실천의 제일 종단으로서 청정수행의 종풍을 더욱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불공은 철저히 지킬 것이며 결과 내증법(結果內證法)을 최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종조님께서는 결과정진법을 종단의 사상(事相)으로써 중히 여기었습니다. 자내증의 수행으로 일관하신 종조님의 수행정신을 이어받아, 스승님들은 더욱 청정한 계행과 스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할 것이며, 종도 여러분들은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는 수행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자된 도리로써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할 바는 첫째로 ‘승단의 화합’이고 둘째로 ‘승단 화합’입니다. 화합의 정신은 비단 우리 종단뿐

창종을 위한 정책집행에 있어 승단전체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 사법을 관掌하고 승단 스승들과 교도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2창종이라는 종단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총지종은 이번 수성 대종사 추대법회를 계기로 종단의 정통과 기풍을 전작하고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교화방법으로 제2창종의 계기로 삼는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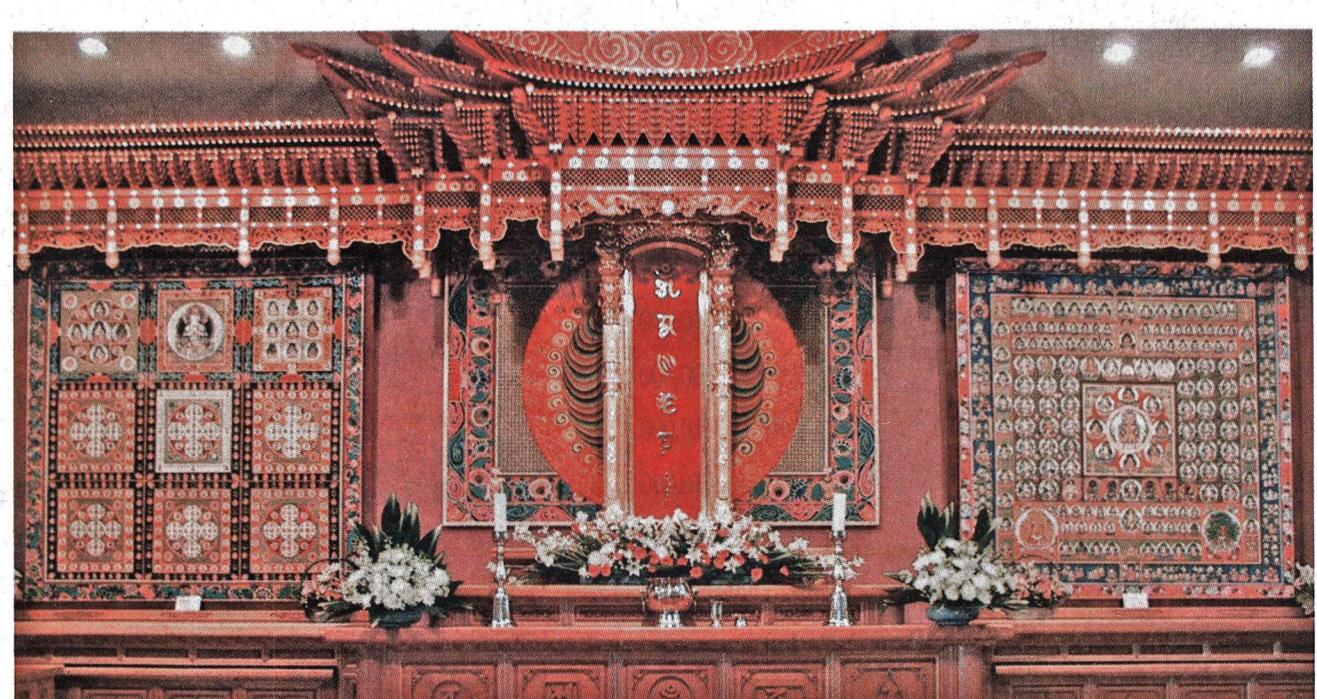


총지종 전국 스승님들이 참석하여 종단현황을 조명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불교총지종은

보문총체총덕(普門總體總德)의 이불(理佛)이신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관세음보살의 본심진언인 육자대명왕진언 음마니반메훔을 본존으로 모시며, 주옥같은 진언(眞言)과 정확한 인계(印契), 엄격한 의례(儀軌)와 사종수법(四種修法)을 비롯하여 유가삼밀 관행법으로 진언을 염송함으로써 즉신성불에 이르게 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한 진언의 세계에서 업장을 소멸하고 즉신성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사설

인사정책에 신중성을.....

이번 달 중순경 종단의 승직자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사이동의 방향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와 승단총회를 개최하여 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결정된 인사이동에 일선사원 스승들은 무조건 복종하는 형태에서 탈바꿈하여 변화되고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본 종단은 다른 종교단체들과 비교하여 종단 내에서 모든 행정과 인사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도에 따라 일선사원의 스승들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사이동 또한 종단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 스승들의 의지와 상반되는 곳으로 인사정책이 이루어져 당사자 및 교도들은 종단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과거에 종단에서 인사정책의 문제점으로 인해 많은 훌륭한 스승들이 종단을 떠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사실은 인사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젊은 스승들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문제와 결부되어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교 전학 시 학교생활 적응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재가종단으로 교회를 해야 하는 스승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타종단과 같이 바람따라 구름따라 흘러가는 출가승이 아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재가승으로 교회의 업무를 담당하느라 종단의 스승들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볼 때 종단적인 지원과 인사이동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인사이동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인사정책도 법문이라는 미명하에 당시자들과 단 한번의 의사교환도 없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종단의 교회가 위축되어 가고 있고, 상명하복으로 중앙에서 지시한 사항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점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수정되지 않고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스승들의 인사이동은 교회와 스승들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 일선사원은 불법의 근본원인인 '자신을 보고, 법을 보고 믿어라'라는 자동명, 법동명으로 교도들 간의 인간관계가 교회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 주교의 인사이동시 교도들은 같은 등상형에 직면하여 사원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제 수성 대종사님을 종령으로 모시고 전 승단이 화합할 수 있는 길은 인사정책과 종무행정의 투명성, 법집행의 일관성, 남을 비방하지 말고 학회하는 승단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종단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신의 허물을 먼저 알라

최근 총지총보의 사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사설은 불교계 및 종단의 문제점을 조명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비판과 칭찬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비판은 종단의 발전을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로 비판의 대상자들은 남을 비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비판에 대한 스스로의 허물을 인식하고 바른 방향으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칭찬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어떤 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지만 남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전에 '남의 허물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습관이 되어 언제나 남의 허물을 말하게 된다.'라는 구절이 있듯이 교회의 일선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에 남을 비방하는 말보다 남을 칭찬하는 말이 앞서야 될 것이다.

제 6차 한중일 불교도 대회

삼국간의 친목도모 및 우호증진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하는 한중일 불교도 대회는 그동안 동북아 대표적인 불교국가인 한중일 삼국이 한 자리에 모여 삼국 불교의 오랜 전통과 우의를 계승하고 불법홍포와 종생교회의 기초위에 국가간 우호증진과 교류협력을 통해 불교발전과 인류평화에 기여하자는 목표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10월 28일 대한항공편으로 일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여 일본 대표단들의 영접을 받은 후 교토로 향해 화정산 지은원을 예방했다. 지은원은 일본 정토종 문주로서 한중일 교류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나기무라 코오류 스님이 주석하고 있는 정도종 총본산이다.

10월 29일 교토 청수사에서 열린 세계평화 기원법회는 한중일 삼국이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독경과 예불을 올린 후 청수사에서 입정교성회 교토보문관까지 3km를 가두발진을 하였다. 또한 입정교성회에서는 "불교의 계율을 지켜 일상생활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라는 주제로 삼국의 대표자 3명이 주제발표를 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

▶ 대답자 : 종령으로 추대되심을 진심으로 경하드립니다.

현재 총지종의 수행체계 및 의례에 대해 일부에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 종령 수성 대종사님 : 수행체계를 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본적은 없지만 변화해야 한다면 승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법에 맞는지를 판단한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고치고 하여 쉽게 일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승단 전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 법에 합당한지를 판단한 후에 결론을 해보려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답자 : 우리 법에 따라 항상 행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법이란 무엇이며 법에 합당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요?

- 대종사님 : 우리 법이란 진언염승을 빠먹지 말고 정해진 시간에 항상 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중요한 일은 결과정진으로 행해야 하며, 종조님께서 정하신 교상과 사상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과정진법과 당체법문은 우리 종단에서 중요한 사상법(事相法)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됩니다.

▶ 대답자 : 계행적인 면에서 예전에 비해 종단의 계행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행자로서,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종사님 : 본인이 판단하건대 계행은 잘 지켜야 하고 계행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종단 창종 당시와 비교하여 계행적인 면에서 퇴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계행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모두가 제대로 잘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본인 스스로가 법을 철저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답자 : 본 종단의 종무행정이 중앙집권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중앙기구의 구성원의 성향과 능력에 따라 원칙과 방침이 바뀌기도 하고 종단정책방향에도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승직별령과 인사이동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앞으로 학생·자녀를 둔 젊은 승들의 경우나 도시사원과 지방사원의 승인사이동이 자녀의 학교, 정서적인 부분 등으로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인사의 대원칙과 종단방침이 미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종사님 : 과거에는 인사이동에 어느 정도 종단방침과 원칙이 있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래에 종단방침의 대원칙이나 융통성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소 불만이 있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승직·인사이동·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여 당사자들의 의사를 심문 받아들이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하며, 종단의 정책과 당사자의 의향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대화로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답자 : 우리 종단은 모든 종정이 중앙의 집행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사분란한 장점은 있으나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역량 배양에는 단점으로 작용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 일선사원의 교도 및 스승님들의 수행과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종무행정의 방향과 청사진 마련은 아주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사원의 활성화와 종무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대종사님 : 중앙과 교구, 사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다루겠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중앙을 중요시하면서 지방사원의 의견과 입장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사법과 전법의 수장으로서 가능하면 행정에는 간섭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집행부와 지방 사원간의 불협화음이 발생했을 때 중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로써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리원장과도 자주 만나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할 것이며, 항상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전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종단을 운영해나갈 생각입니다.

▶ 대답자 : 다른 종교단체에서는 인재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제양성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대종사님 : 도제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각기 장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융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도제양성의 큰 과제요 성공여부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종단을 위해 도제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입니다. 앞으로 도제양성을 위해 여러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또한 젊은 스승님들과 교도보살님, 원로스승님과 중진 스승님, 종무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야 좋은 방안이 나오는 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대답자 : 또한 승직자들에 대한 재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회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스승님의 재교육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스승 재교육에 대한 고견과 계획을 말씀해주시십시오.

- 대종사님 :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연구하지 않고는 발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행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확신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로 하

여금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할 것입니다.

▶ 대답자 : 현재 본 종단은 사원과 서원당, 의식과 의례 등이 사원마다, 주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단의 수행체계를 다양화하고 사원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종령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며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주세요.

- 대종사님 :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의식의 근본은 종조님때부터 형성된 종단의 의식을 따라야 합니다. 사원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근본적인 틀과 방법면에서는



통일된 의식을 실시하도록 해야합니다. 종단방침에 어긋나는 것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 대답자 : 종법상 본 종단은 다른 불교계 종단들과 달리 종령의 권한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단의 경우 종정은 종단의 최고 어른으로 사법과 전법만을 관장하고 모든 종무행정은 종무원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종단도 수행과 행정을 이원화하여 수행종단 담당에 종법을 개정하여 통리원장이 종무행정의 전권을 가져야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대종사님 : 행정의 모든 것은 결과내

증을 통해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증법을 실시함에 있어 비밀리에 교도들과 스승님들을 시켜 결과내증을 보게 한 후 결과내증의 결과를 기록하여 나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통합된 의견에 따라 행정을 실시하겠습니다.

▶ 대답자 : 본 종단은 제2본산건립을 위

해 모든 현상금의 20%를 적립하고 있어 재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준비되었다고 볼니다. 또 종단내에서는 납골당을 건립하여 교도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2의 본산건립의 경우 현재 불사가 답보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납골당과 제2본산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고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 대종사님 : 시대에 변화에 따라 납골당 건립 등 대사회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제2본산의 건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본인 혼자의 힘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교도 및 스승님들과 함께 결과내증법을 본 후 내증의 결과를 수집하여 참고하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승단 및 교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은 오로지 정진을 해본 후 만다라 봉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내증은 고집과 아집으로 가득차고 미움을 전일하게 가지지 않으면 결과내증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일한 마음으로 당체법문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로 대구 개천사에서 교회하고 있을 때 당체법문을 통해서 교도보살의 남편이 군대에서 죽었다는 것이 보여 그 보살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며 깜짝 놀라워 했습니다. 그럽습니다. 자칫하면 점을 보는 것과 다르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체법문과 회사법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실만한 스승님을 선별하여 사안을 맡겨서 결과를 보게 한 후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단 장래를 위하여 법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 대답자 : 앞으로 종단의 학회를 위하여 많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법규개정은 항상 개선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형평성에 맞는 종무행정, 원칙이 있는 인사 이동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견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대종사님 : 종단의 학회는 정말 중요합니다. 법규의 개정에 있어서도 사적인 이익은 버리고, 종단의 발전을 위해 종단 스승님들의 불평과 불만을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원로와 중진 스승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종령과 통리원장의 원활한 대화와 허심탄회한 논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 대답자 : 사회복지는 교도들을 위한 보시처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신중을 기하고 종단의 협판에 알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자기 힘에 알맞도록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중과 교도들을 위한 복지부터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지나 하는 것은 종단형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대종사님 : 사회복지는 교도들을 위한 보시처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신중을 기하고 종단의 협판에 알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자기 힘에 알맞도록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중과 교도들을 위한 복지부터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지나 하는 것은 종단형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대답자 : 본 종단은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하였지만 현재 활동은 저조한 상태입니다. 불교의 자비정신과 대사회를 위한 회향정신을 구현하는 치원에서 복지사업의 활성화는 필요하고 봅니다. 종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대종사님 : 사회복지는 교도들을 위한 보시처원에서 꼭 필요하지만 너무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신중을 기하고 종단의 협판에 알맞게 실시해야 합니다. 자기 힘에 알맞도록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대중과 교도들을 위한 복지부터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복지나 하는 것은 종단형편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대답자 : 현재 총지사에서 만다라 봉안 불사를 한 후 밀인사, 실보사, 법황사에 만다라가 봉안되었고, 다른 사원에서는 종단 방침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만다라를 봉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사원에 만다리를 봉안할 것인지 대해 고견을 말씀해주시십시오.

- 대종사님 : 종단 일각에서는 본인이 만다라 봉안을 반대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다라 봉안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은 결과내증법을 통해 결정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조님께서 세우신 결과정진법이 종단의 주요 사상법(事相法)입니다. 본인

▶ 대답자 : 취임법회에서 밝혔듯이 청정 수행 종단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단발전과 수행정신을 더 높이 기 위하여 승단과 교도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보시며, 앞으로 사법과 전법을 관장하는 최고어른으로서 어떻게 종단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십시오.

▶ 대답자 :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종사님 : 종조님의 설립이념을 확고히 하고 당체법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여 종단의 정책에 믿고 따라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종단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종된 지 30여년 밖에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정보완하는 자세로 생활하고 항상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단운영에 있어서는 창종 당시의 법을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대답자 : 최근 종조기념관 건립을 준비하면서 종조님의 유품과 종조님의 사상과 정신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조님과 종단의 교상과 사상을 연구하는 전달기구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종령이었던 특정 대종사님께서 생전에 구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열반하시어 뜻을 이루지 못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대종사님 :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종조님으로부터 밀법을 전수받아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종조님에 대한 연구는 종단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조님의 자료를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일은 미를 일이 아닙니다. 변화와 발전도 뿐리가 튼튼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충원을 해야 되겠지요.

▶ 대답자 : 종령취임법회가 원만하게 회향하였습니다. 김회가 있으실텐데요....

- 대종사님 : 모든 일은 전체가 힘을 함께 끌쳤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법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와 교도 여러분, 종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앞으로 승단 전체가 합심하면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 대답자 : 마지막으로 승단의 스승님과 교도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 대종사님 : 우리 종단은 아직도 성장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스승님과 교도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닦고 인욕하면 옳은 길이 열릴 것입니다. 모두가 마음을 닦고 정진하는 자세로 생활하였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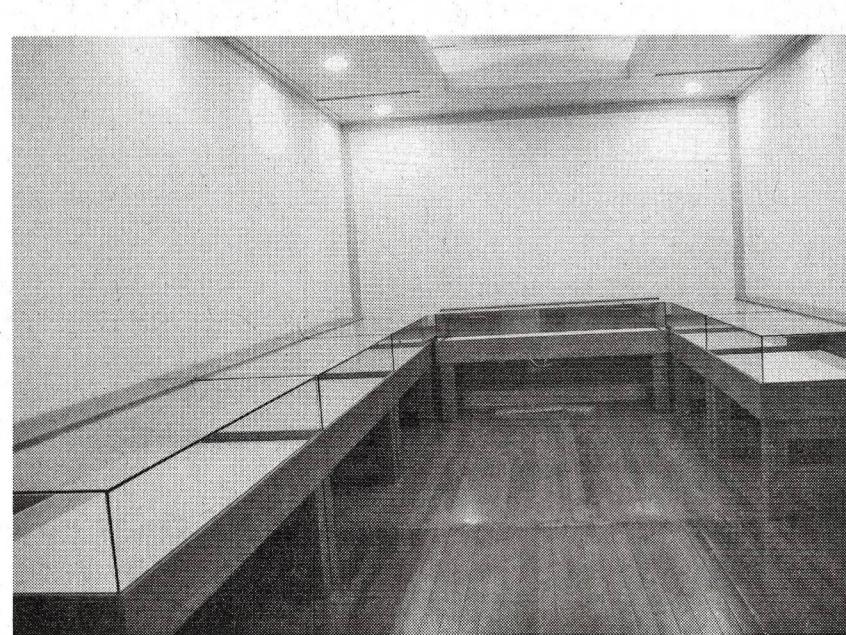
집행부는 스승님들과 교도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전 승단은 일치단결하여 종단의 발전과 개인의 수행도량을 넓히는 데 모두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대답자 : 오랜 시간 동안 귀중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많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대답 : 법경/ 법장원 연구원

* 정리 : 김용주 / 총지종보사

종조님의 유품 및 관련 자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밀교의 중흥을 위하여
총지종을 창종하신 종조 원정 대성사 !!!
대성사의 창종정신과 대비원(大悲願)을
계승하고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종조기념관' !!!
이제 그 회향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종단에서는 종조기념관에 전시할
유품과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으나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는 스승님이나
교도 여러분께서는 법장원이나 통리원
총무부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불교 총지종 법장원 · 통리원 총무부. 전화 (02) 552-1080~3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법공

- 수집 자료 내용 -

1. 유물류

- 종조께서 사용하거나 가지고 계셨던 물건.

2. 사진류

- 종단관련 행사나 대외행사, 기타 개인적인 일로 찍었던 일체의 사진.

3. 종단의 교학이나 종조법설 및 기타 강공자료

- 종조님께서 강공회나 기타 행사시에 설하셨던 법문이나 강의내용을 기록하거나 보관하고 있는 자료.

4. 서신류(書信類)

- 종조님과 왕래했던 서신류.

5. 기타

- 종조님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자료.

기획연재 양부만다라 (10)

태장계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문수보살(文殊菩薩)

지난 호에서는 '중대팔엽원(中臺八葉院)'의 동방보당여래와 남방 개부화왕여래 사이의 동남간(東南間)에 계시는 보현보살(普賢菩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남방 개부화왕여래와 서방 무량수여래 사이의 서남간(西南間)에 자리잡고 있는 문수보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수보살(文殊菩薩)은 남방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의 맨에서 깨달음을 위한 지혜와 그 지혜를 얻기 위한 수

문수보살을 밀교에서는 묘길상(妙吉祥)이라 부른다. 그래서 밀호(密號)를 길상금강(吉祥金剛)이라 한다. 밀교에서 문수보살은 개부화왕여래와 무량수여래 사이에 자리잡고 있는데 대일여래의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 그 지혜는 바로 대일여래의 오지(五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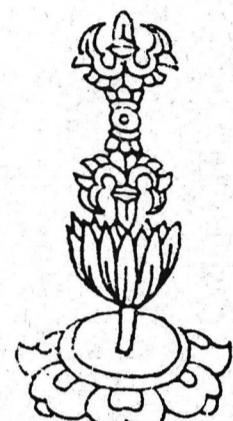
『대일경소』에서는 '문수는 커다란 지혜를 나타낸다. 가장 뛰어난 공(空)의 지혜로써 보리심(菩提心)을 청정케 하고, 반야(般若)의 이겸(利劍)으로 번뇌를 근원부터 자른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른 손에 들고 있는 경권(經卷)은 공(空)의 지혜를 설하는 반야경(般若經)이며, 왼 손에 들고 있는 연화(蓮華) 위의 금강자(金剛杵)는 번뇌를 부수어 없



문수보살의 인상(印相)-연화합장



문수보살



문수보살의 삼매아형



연꽃 속의 아름다운 세상

인연

얼마 전 '생태공동체 운동'을 전국 곳곳에서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녹색대안운동포럼'에 참석하게 되었다. 공동체운동을 실천하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유명하신분들이 참석하는 포럼이라 '이 분들의 시는 이야기만 들어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싶어 만사 재쳐두고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 사람 사는 것의 연결고리를 생각하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으로 한창 어지럽던 80년대 말 나는 대학을 다녔다. 어느 가을날 학생회관에 혼자 앉아 단풍을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배낭을 메고 얼굴에 미소를 가득 담은 채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운동권에서 페니 알려진 선배였지만, 당차거나 냉철하기보다는 부드럽고 상냥한 사람이었다. 그 때 '나도 저렇게 멋지고 씩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는 기억이 아름답게 남아 있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그 선배를 만난 것이었다. 지난 10여 년간 시국사법으로 옥살이를 하고 올2월에 출소하여 지금은 경기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태공동체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건 정말 기분 좋은 만남이었다. 오랜만의 만남이라 좋았고, 얘기치 않은 우연한 만남이라 더 좋았고, 서로를 실망시키지 않은 만남이라 좋았다. 젊은 날의 순수와 험기로 많은 청년들이 정의를 위해 투쟁하였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불의가 있든 없든 무심히 지나쳐가고, 주머니 속에서 잇속을 헤아리며, 때론 권력과 결탁하여 힘없는 사람들을 울부짖게 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변해간 모습들을 보아온 터라, 그저 자신의 위치에서 떳떳이 사는 것만으로도 반기운데, 뜻있는 일을 함께하니 어찌 반갑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날 나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날지 모르니, 지금 이 순간 나와 인연(因緣)되어 있는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였다. 최근 청화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남편이 생전에 스님을 복지 못하여, 스님과 인연없음을 아쉬워한 적이 있다. 물론, 직접 복는 인연은 없었을지 모르나, 스님 생전의 말씀이 담긴 책을 읽거나 그 분의 가르침을 마음 속에 되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스님과의 좋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불교에서는 "전생의 인을 알고자 하면 금생에 받는 것이 그

것이요, 후생의 과를 알고자 하면 금생에 짓는 것이 그것이다." (인과경)라는 가르침이 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후에 일이 결정되어지고, 지금 여기서 겪는 고통도 고통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잘 해결해야만 다음에 다시 그런 고통을 받지 않는, 어찌보면 지극히 현실적이 고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나와 인연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사회생활 중 가장 어려운 일이 '사람사이의 관계'를 좋게 맺는 것이라고 한다. 비단 이것은 직장인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어린이hood, 주부도, 나와 같이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도 가장 힘든 부분이 '나와 생각이다른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사실, 나도 한 때 심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상대가 원인을 제공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고치면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화가 나있었고 고통스러웠다.

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생각을 한참해보니, 이렇게 심한 고통의 원인이 과연 이번 생만의 문제일까? 지난 생에 이미 원인이 있었고, 그로 인해 다시 고통의 관계로 만났는데, 지금 나는 고통의 업을 더욱 더 누적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다음 생에는 더 나쁜 악연으로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건 정말 꿈직한 일이었다. 그 후로 나는 그를 '화'로 대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때때로 그의 좋은 점도 보게 되었다. 이런 일상적 경험이나로 하여금 삶이 고통스러울 때일수록 호흡을 한 번 크게 하고, 가능한 한 좋은 인연을 만들도록 해야만 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었다. 나와 인연 있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흔히 비유되듯이, 나와 인연이 되어 오늘 내 입에 들어가는 한 일의 밥알에도 농부의 땀과 한여름의 햇빛과 땅의 흙내음과 개구리의 헤엄질이 물어 있다. 모든 것의 은혜 속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작은 미물에서부터 사고 깊은 인간까지, 조그만 도량들에서 널따란 하늘까지 고맙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주위의 모든 것과 관계맺음을 좋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해 진다. 이것은 다소 진부한 내용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나 의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김선미/인드리랑 생명체 총무국장〉

종교적 실천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

깨달음을 위한 수행과 실천을 강조

행을 상징하는 보살이다. 즉 개부화왕여래의 인위(因位)로서 종교적 실천의 지혜를 나타낸다.

문수보살은 산스크리트로 만주스리(Manjusri)라 한다.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여 구역(舊譯)에서는 문수사리(文殊師利)·만수시리(滿殊尸利)라고 하고, 신역(新譯)에서는 만수실리(曼殊室利)라고 부르고 있다. 이를 뜻으로 번역하여서 묘덕(妙德)·묘수(妙首)·보수(普首)·유수(濡首)·경수(敬首)·묘길상(妙吉祥)이라 표현하고 있다. 묘한 덕성을 지닌 보살로서 우두머리 보살이란 뜻이다.

또 널리 계시는 상수보살(上首菩薩)이요, 은혜를 입게 하는 보살이며 존경할 만한 보살이요, 길하여 상서로운 보살이다. 문수(文殊)와 만수(曼殊)는 묘(妙)의 뜻이며, 사리(師利)와 실리(室利)는 우두머리(首)·덕(德)·길상(吉祥)의 뜻이다. 대승불교에서는 보현보살과 함께 석가모니불의 협시(挾侍)보처(補處)보살로서 사자를 태고 석가모니불의 왼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지혜를 상징한다. 사자를 태고 있는 것은 위엄과 용맹을 나타낸다.

안다는 것을 나타낸다.

문수보살의 머리에는 다섯 뮤음의 계를 하고 있는데, 바로 대일여래의 오지(五智)를 상징하고 있다. 비론손에는 지혜의 칼을 들고 원손에는 연꽃 위의 오고금강자를 쥐고 있다. 즉 문수보살의 삼매아형(三昧耶形)은 청연화(青蓮華) 위의 금강자(金剛杵)를 엎어 놓은 모습이다. 간단하게 청연화(青蓮華)로 표현되기도 한다.

존형(尊形)은 황색(黃色)으로 원손에 연화(蓮華)를 들고 그 연화 위에 오고 금강자(金剛杵)를 놓여 있다. 오른 손은 경권(經卷)을 들고 있다. 머리 상투는 다섯 갈래로 묶여져 있다. 인상(印相)은 연화합장(蓮華合掌)이다.

문수보살의 진언은 '나마 사만다 봇다남 아· 베다비디 사비하'(namah samantabuddhanam a vedavidesvaha)이다. 널리 모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 지혜가 있는 분이시여! 사비하'라는 뜻이다.

〈자료정리:법장원〉



이달의 명상

"을 때도 한 물건이 없이 왔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간다. 나의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니 다른 이의 재물에 마음을 들까보다 살아생전 아무리 많이 장만해도 죽은 다음 가져갈 것은 지은 업뿐일세"

인생살이 한평생을 아등바등 지내지만 결국은 무엇이 남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가족입니까? 오직 나의 업(業), 내가 지은 업만이 나와 함께 합니다.

오직 업만이 함께 하기에 잘 살아야 합니다. 재물과 사람에 얹매여 허덕이지 말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환경 또한 '나의 업' 이므로, 이 끊어진 업을 원만하게 풀고 좋은 인연을 새롭게 만드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가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남을 도우면서 살고 수시로 마음자리를 갖고 닦아 영혼을 진화시켜야 합니다. 죽은 다음 함께 갈 것은 이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큰 부자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어 시신을 장지로 옮길 때, 반드시 두 손을 관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라." 유언에 따라 가족들이 상여를 메고 갈 때 두 손을 관 밖으로 내어 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 밖으로 내민 두 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보아라. 나는 돈도 많고 집도 크고 식솔들도 많지만 오늘 이때

를 당하여 나 홀로 간다. 부귀영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더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

가는 인생, 평생 모든 재산도 한 푼 가져갈 수 없음이니..."

이렇게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놓도록 한 깨닭은 인생은 올 때도 빈손, 갈 때도 빈손임을 깨우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무엇을 찾아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언으로 깨우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편집자 주〉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종단의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님의 추대법회에 직접 왕립하여 주시고, 또 각별한 관심과 환희 심으로써 축전과 화환을 보내 주신 교계 대덕스님과 사부대중의 모든 분들께 본 종단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글월로 대신 합니다.

법회 동참의 수희공덕으로 성불의 대원(大願)을 이루시기를 서원합니다.

▶ 법회 동참하여 주신 분

태고종 총무원장 이운산,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관음종 총무원장 이홍파, 총화종 총무원장 전남정, 원웅종 종정 배일공, 일봉선교종 총무원장 김무찰, 원효종 총무원장 송무진, 미륵종 총무원장 윤승정, 원웅종 승정원장 조성경, 법륜종 총무원장 이덕산, 염불종 총무원장 이청봉, 불교텔레비전 부산방송 대표이사 정암,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 진각종 문사부장 회성, 태고종 동방불교교 학처장 법현, 불교방송사장 김규칠, 열린 우리당 용산구 위원장 여익구, 현대불교사장 김광삼, 강남구청장 권문용, 동해중학교 교장 강경중, 불교텔레비전 제작국장 이성순, 한일불교협회 상임이사 민을식, 한일불교협회 감사 손안식, 한일불교협회 사무국장 곽진용, 강남구 역삼동장 채수영,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관장 조영표, 외환은행 지점장 염호일, 한미은행 지점장 권보경, 수협 지점장 김종표, 우리은행 지점장 김청룡.

▶ 축전을 보내 주신 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김근태,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조성준, 새천년민주당 연동희 사무국장 이상곤,

▶ 화환을 보내 주신 분

대통령 노무현,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진각종 통리원장 효암, 천태종 총무원장 운녀,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총화종 전남정, 보문종 총무원장 법종, 원웅종 종정 일공, 융화종 총무원장 법영, 미륵종 총무원장 송정, 법상종 총무원장 학산, 선교종 종정 김무찰, 법어사 주지 성오, 불국사 주지 김종상, 도선사 주지 해자, 불교텔레비전 사장 성우,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성, 현대불교 사장 김광삼, 불교방송 사장 김규칠,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일동,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 국회의장 박관용, 한나라당 대표 최병렬, 새천년 민주당 대표 박상천, 불교총지종 부산경북교구, 불교총지종 대구경북교구, 불교총지종 서울경인교구, 역삼재가 노인복지센터 관장 조영표, 주식회사 다양건축, 상주식회사 상신산업, 우리은행 은행장 이덕훈, 하나은행 연희동 지점장 안철원.



제8대 종령 수성 대종사 추대법회(11월 18일)

총지논단

실천공부 ⑥

본 글은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 서적간행을 위해 친히 쓴 썼던 원고의 일부입니다. 원정 대성사께서 청종의 뜻을 구국도생(救國度生)에 두셨던 만큼 구구절절 일체종 생제도의 대비원(大悲願)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한국밀교의 중흥을 창종 정신으로 삼았던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정통밀교종단의 교상과 시상의 체계와 정립에 전념하셨습니다.

특히, 한때 진각종단의 총인직을 맡으셨을 때는 모든 교리체계와 교전편차를 순수 윤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이러한 면면은 원정 대성사의 유고(遺稿)에서 엿보게 됩니다. '심인진리' '진각' 등의 언급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총지종과 진각종의 교전을 아우르고 있는 종조 원정 대성사의 가르침에서 대성사의 숨결을 다시 한번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네가지 큰 서원>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중생을 서원코 제도할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가 가이 없음을 서원코 끊을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법문이 다함이 없도록 서원코 배울 것이요,

자기의 마음 가운데 있는 참 도를 서원코 이를 것이다.

<번뇌와 해탈>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악업은 다 어리석어 탑하고 성내므로 말미암아 뜻과 입과 몸으로 지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에 죄를 짓던 그 마음을 없애고 현재에 죄를 짓는 그 마음을 없애고 미래에 죄를 짓을 그 마음을 끊어 없애는데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업도 따라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멀할때에 죄도 또한 멀한다고 이르시니다.

<인과>

현실로 잘 도우는 사람은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이 많고 진리로써 잘 도우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도움을 받음이 많으니라. 이 우주에는 내가 아는 사람은 적고 모르는 사람은 많으니 아는 사람이 도움이 크겠느냐? 모르는 사람은 도움이 크겠느냐? 유상으로서는 과보가 적으로 백천만분의 하나님을 받게 되니 더디고, 무상희사는 과보가 크므로 백천만배를 받게 되느니라.

인지에서 과받는 두 길이 있으니 사람이 알게되면 사람이 도우게 되고 사람이 모르게 되면 진리로서 도우게 되느니라.

인지에서 과받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부처의 원칙이나 나쁜 인을 지으면 나쁜 과를 받고 좋은 인을 지으면 좋은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고 선한 인을 지으면 선한 과를 받고 효순한 인을 지으면 효순한 과를 받게 되는 것은 털끝 만치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나의 착한 것을 사람에게 알려서 청찬

을 많이 받게되면 죽어서 내세에 복과를 받이도 적고, 사람이 착한 것을 몰라서 청찬을 받지 않으면 곧 현세부터 진리의 복과를 받아도 좋다.

사람이 도우는 것은 아는 이만이 도우게 되므로 범위가 적고, 심인이 도우는 것은 천지인 만물이 다 도우게 되므로 범위가 크고 넓으니라.

가 되느니라.

삼신불교(三身佛教)는 죽어서 극락가는 방편을 크게 세우지 않아도 삼보불교(三寶佛教)가 죽어서 극락가는 방편으로서 교화하게 되므로 세상이 다 알게 됨에 따라 힘쓰지 않는 삼신불교에서는 잘 깨닫게 되며 삼보불교는 살아서 행복하게 하는 방편을 많이 세우지 않아도 심

가 없더라도 우주 전체를 포교하는 대불교(大佛教)가 되지 못하느니라.

드러난 상벌 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화복이 크며 사람이 청찬하는 것 보다 진리의 복덕성이 크며 나의 마음이 넓고 크고 등글고 차면 나의 짐도 넓고 크고 등글고 차느니라.

<용맹정진>

능엄경에 말씀 하시오되, '너희들이 도를 닦아 마음이 정하고 일정한 곳에 들어가서 시방보살과 무루 대아리한의 마음이 극히 정밀하여 담연청정하면 모든 미왕과 범부의 하늘들이 인간 사람과는 다른지라. 그 무리들의 궁전이 무고히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고 멀어지며 물과 육지가 날며 솟아남을 오톰선안으로 보고 놀라고 무서워 하는 지라.

인간 사람은 어두어서 그것을 알지 못하나 범부의 하늘 무리들은 다섯 가지 신통이 있어 이것을 보고 대경하여 서로 와서 백천 방편으로 도를 파하고자 하니라.' 하셨다. 또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참된 마음을 빌하여 본원 각성으로 돌아가면 시방허공이 다 녹아지나니 어찌 허공 가운데 있는 세계가 무너지지 아니하리요.' 하시니라.

또 진각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되, '저 모든 마가 비록 크게 성을 내나 그의 무리들은 번뇌망상 가운데 있는 것이오. 너는 묘각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이들이 아무리 신통을 다하여 도를 파고하려 하여도 비유컨대 바람이 태양광명을 불어 옮기려 하는 것과 같으며 말로 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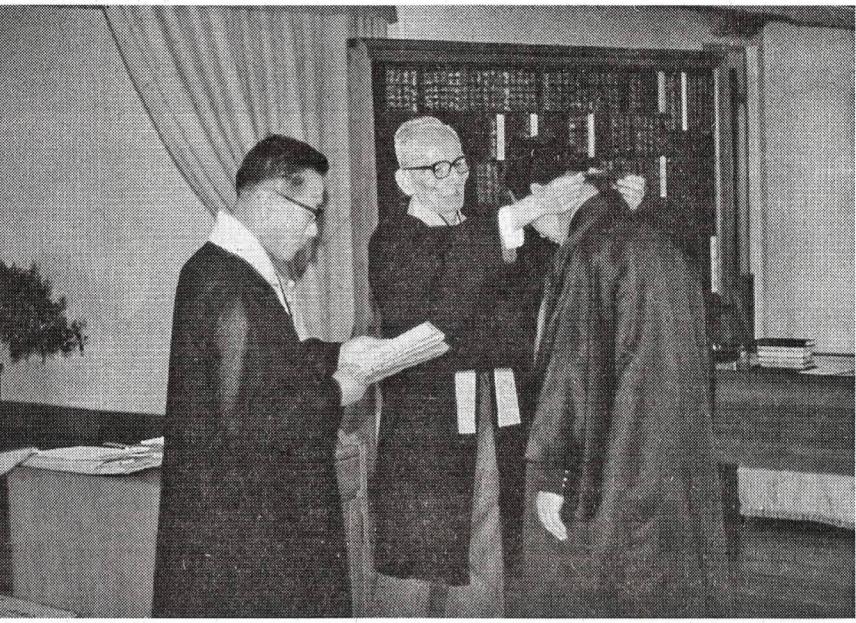
을 내고져 하는 것과 같아서 조금도 서로 상관이 없느니라. 만일 마음이 요동하면 미장을 이루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물과 같고 범부의 하늘과 미왕과 모든 귀신들은 어롭과 같아서 더운 기운이 가까이 오면 곧 녹아지는 것이니 아무리 신력을 믿어도 쓸 곳이 없다 하니니라. 그러므로 더욱 기일을 정해서 심공하는 사람은 이는 마음과 구하는 마음을 두지 말고 육행을 실천하여 내가 현실이나 진리에 그릇된 것을 참회하고 제일 염송 많이 하여 회사 자주 할 것이다.

만약 정기 심공을 잘 마치게 되면 심인이 이길 것이요 정기 심공을 잘 마치지 못하면 마장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으면 마(魔)는 침노하지 못하는 것이다. 벽이 틈나 바람이 들어오고 마음이 틈나 마(魔)가 침노하게 되나니 예를 들면 내가 제일 겁내는 데서 일어나고 두려운 데서 일어나고 사랑하는 데서 일어나고 집착한 데서 일어나고 아픈 데서 일어나고 슬픈 데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데에 일어나고 미워하는 데서 일어나고 욕심내는 데서 일어나고 성내는 데서 일어나고 남편에서 일어나고 자식에서 일어나고 부모에서 일어나고 병에서 하다히 외마(外魔)를 불러오는 것을 보겠소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능히 마(魔)에 지지 않느니라.

<행복한 데 이르는 심공 고개>

서원하는 묘덕이 일어나자면 이와같은 과제가 있느니라. 칠칠 심공에는 사일 고개가 있고 삼칠 심공에는 이십오 일 고개가 있고 백일 심공에는 오순 고개가 있고 평생 심공에는 사연 고개가 있느니라. 이것을 알아서 속지말고 용맹으로 써고개를 깨달아 넘어 가는 데에 평탄한 길이 열리고 행복한 데에 이르게 되느니라.

<자료제공 : 종학연구실>



선한 인을 지으면 선한 과를 받고 악한 인을 지으면 악한 과를 받는다

유에 인을 지으면 무에 과가 되고 무에 인을 지으면 유에 과가 되느니라. 유상불을 공양하면 극락이 장원해서 내세에 더디게 과를 받고 무상불을 깨쳐 살

인불교가 살아서 행복되는 방편으로서 교화하게 되므로 세상이 다 알게 됨에 따라 힘쓰지 않는 삼신불교에서도 잘 알게 되나니 이와같이 표면은 서로 다르나 이면은 하나가 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

조선화원장의 총지 동의 보감



만성 기관지염

지 확장증 및 폐암 등에서도 만성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 기관지염이 의심되면 일단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만성 기관지염의 진단을 위해 폐기능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만성 기관지염"

완치되지는 않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연은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며,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타인이 피우는 담배연기를 마시는 간접흡연에 의해서도 만성 기관지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자신과 타인을 위해 금연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빈번한 기도감염이 만성 기관지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독감이나 폐렴등의 호흡기 감염 증세가 있을 때에는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여 기

만성기관지염은 예방과 적절한 치료가 중요

민간요법은 생강과 파뿌리, 굴껍질 함께 달인 생강탕

에서 다소 진행된 형태인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의 경우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만성 기관지염은 한번 발병하게 되면 잘 낫지가 않을뿐 아니라, 일단 만성 폐쇄성 기관지염으로 진행하게 되면

도의 조직학적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도내를 깨끗이 하기 위해 가래를 배출하는 일에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폐렴 및 독감 예방주사들을 접종하는 것도 빈번한 기도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성 기관지염에 걸리지 않기 위해 예방에 각의 노력 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만성 기관지염의 증상이 보일 때에는, 일단 병원을 방문하여 자신의 증상이 만성 기관지염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치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 질환은 오랜시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어 대개 50대에서 증상이 나타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호흡부전등으로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 또는 예방인데 예방의 방법으로는 안정과 보온이 중요하며 기도를 자극하는 담배는 피하고 실내의 습도를 충분히 하며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며 체내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의학측에서는 굴껍질한방에서 <진피>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약재로, 기침이나 가래를 삭히고자 할 때 곧잘 처방된다. 비타민이 많아서 초기 감기 대응으로 쓰이는 약재이기도 하다. 초기 감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간요법은 생강과 파뿌리, 굴껍질을 함께 넣어 달인 <생강탕>이다. 겨울철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굴을 이용하여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이겨내는 지혜를 발휘해 보자.

여성 美 한의원 원장 02)545-0072

여성 美 한의원

■ 여성병(부인과) 클리닉

- 월경병 : 월경불순, 생리통, 무월경, 월경곤란증, 간경기 장애, 과소-과다월경 등...
- 생식기병 : 자궁근증, 질염, 냉증, 대하증, 봉루증, 자궁선근증, 요실금...
- 임신병 : 불임, 임신오자(임덧), 임신중증증 등...
- 산후병 : 산후풍, 산후비만, 유산후유증 등...
- * 기능성성작과 요법(자경단, 요실단 등)으로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비만 클리닉

- 여성 : 자궁 다이어트
- 남성 : 복부 다이어트

■ 가족 클리닉 - 보양, 수험생 등

- * 환자들의 요청으로 2003년부터 남편 및 자녀들을 위한 클리닉을 개설하였습니다.*

■ 진료시간

평일 09:30~17:00

주말 09:30~17:00

점심시간 13:00~15:00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마지치료기



좌훈욕기



여성美 한의원
여성병(부인과)으로 고생하시는 여성
여성의 만성질환 치료요법으로 여성분의
여성다움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다가겠습니다!

자경단(子經丹)

종양질환
자궁근증
생리질환
불임 자궁경련제거

생활액 분석기

자동팔강진단기

초음파

온열전기침

저주마지치료기

좌훈욕기

최고의 진료 및 시스템

온라인 상담 www.women119.co.kr

전화상담 02)545-0072

Fax 02)545-219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육아TV "전문의 상담"

한남대교

점원동

신사역3번출구

신사역운행빌딩

도산대로

30M 20M

지하철출구

1분거리

STARBUCKS

일방통행

마포미판의원

강남역

종경소리

- 무엇이 된다는 것

종이 그 속을 비운 이유는
멀리까지 소리를 울리기 위함이고
거울이 세상 모습을 평등하게 담을 수 있는 것은
그 걸이 맑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아래로만 흐르는 것은
넓은 바다가 되기 위함이고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 헤자스님/도선사 주지

나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바리문 출신의 수학자 목건련이 부처님에게 물었
다.

"그 많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 깨달음을 이룬 사
람도 있고 방황하는 이도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가르침을 배웠는데 왜 그러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답변했다.

"나는 다만 길을 가리켜 줄 뿐이다.
그 길을 가고 아니 가는 것은 그들에게 달려 있
다."

- 김원각/시인

꼬리와 머리

화가 난 뱀의 꼬리가 머리에게 따졌습니다.

나도 한마디

교도들을 위한 조직적 사회봉사를...

현재 국가에서는 사회복지 활성화하며 질병, 노
령, 장애, 재해로 인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들
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은 차별성의 원칙에 따라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만 지원이 될
뿐 정서적, 심리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비공식적 지원의 활성화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 천주교 등 개신교에서는 각
교회별로 자원봉사단체를 구성하여 매주 정기적으
로 어렵고, 고통받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보살펴
주고 있어 "중국 사람들은 불모지에 진출할 때 식당
을 열고, 한국인들은 교회를 연다."라는 속언이 생
길 정도로 교회의 수지는 전세계에서 면적당 밀집
도가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불교단체에서도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복지법인을 구
성하여 개신교 못지 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
다.

그러나 종지종의 경우 교도들의 연령은 노령화되
어 일평생을 음미나 반복으로 진언연송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며 종단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심혈을
기울이며 생활하였지만 나이가 들어 이제는 거동도
불편해서 절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보살펴 주고 해결하는 방
안으로 각 사원에서는 통리원의 지원과 보조를 기

"나는 왜 항상 앞서가는 너를 따라가야만 하니?
이번엔 내가 먼저 갈테다."

앞에 놓여 있는 불을 보고
머리가 한사코 말렸지만
성급한 꼬리는 벌써 들진한 뒤였습니다.

공생의 의미를 일깨우는 가르침입니다.
- 맹란자/수필가

꿈

새가 되고 싶다.
물이 되고 싶다.
바람이 되고 싶다.
그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이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새라면
비위를 만나면 비위를 끼고 돌아가고
산을 만나면 두팔을 가득 보듬어 안고 함께 가며
가시철망 세멘콘크리트를 만나면
배밀이로 기어가다가, 흙을 만나면 땅속
깊이 스며들어 마침내는 이윽고 팔팔
화르르 흘러 갈 수 있는 물이라면
늘 머물러 있으면서 늘 떠나고 늘 떠나면서도
늘 또한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바람이라면

- 김성동/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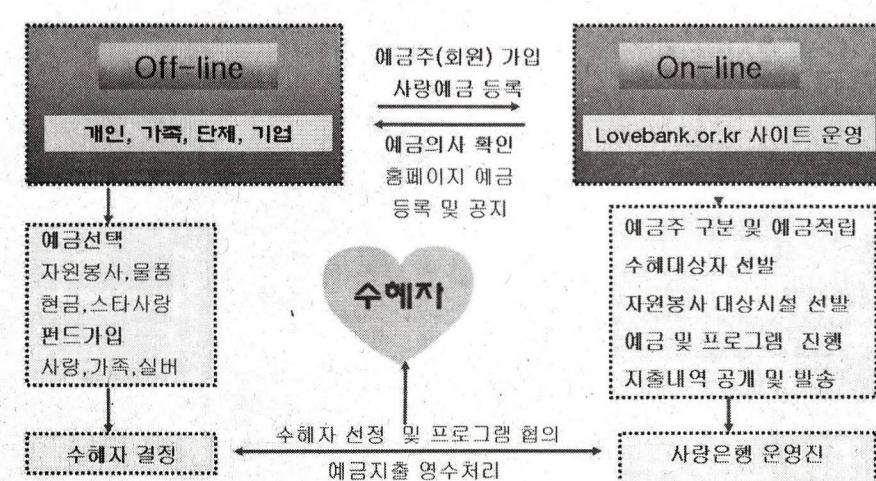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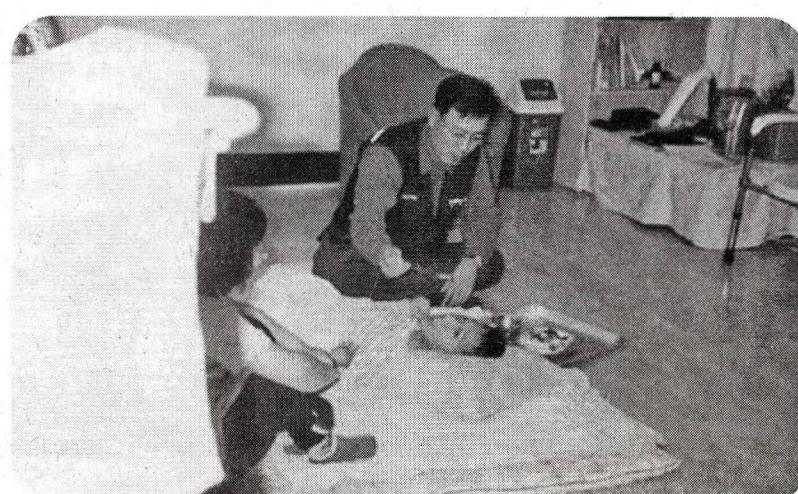
〈자료제공 : 한국불교 종단협 부설
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임〉



Lovebank 사랑은행은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예금하세요

사랑은행(Lovebank.or.kr)은 On-line과 Off-line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인간 사랑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랑의 손길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들과 직접 나누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장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세상과 희망찬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청소년 미래연구소
Institute for Youth Future
www.lovebank.or.kr

“63빌딩 견학, 따뜻한 겨울나기”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봉사활동



총지총 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는 11월 16일 주간보호 어르신들을 모시고 63빌딩을 다녀왔다.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63빌딩을 처음 방문하여 수족관과

태고종 종정 덕암스님 입적

“생사열반 모든 것은 모양이 없도다”

한국불교 태고종 종정인 덕암스님이 22일 오전 서울 사간동 법륜사에서 세수 90세, 법립 73세로 입적하였다.

덕암스님은 1913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나 30년 일 여섯의 어린 나이에 금강사 유점사에서 벽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출가하였고 평생을 청정수행으로 일관하며 대중을 교화하고 사회를 선도하는데 힘써 불교계와 사회로부터 정신적 지도자로 추앙 받았다.

특히 태고종단의 중창주로서 총무원장과 법륜사 조실, 선암사 방장 등을 거쳐 지난 86년부터 93년까지 태고종 제13세 종정을 역임했고, 98년에는 제16세 종정

에 재추대 돼 법륜사에서 주석하여 왔다.

스님은 열반송에서 “헛되고 빙 봄이란 어떤 것인가? 본래 만생을 돌고 도는 그것이네 누가 나에게 이 도리를 묻는다면 무량 겁이 다하고 천지가 열리기 전이라 하리라. 내가 법계를 보니 본래 성품이 없고 생사와 열반 역시 모양이 없도다 만야 누가 내게 가고 오는 곳을 묻는다면 구름을 걷고 서쪽하늘에 붉은 해가 비친다 하리라”라고 말하였다.

한편 태고종은 26일 신촌 봉원사에서 종단장으로 영결식을 봉행하고 순천 선암사에서 다비식을 가졌다.

생활속의 밀교 자신을 잠시라도 잊지않고 늘 살피는 것이 수행이다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 기분과 다르다고 하여 그들에게 화내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 속에 있는 작고 굽은 나무들에 대하여, 다른 나무들처럼 키가 크지 않고 뚝 바르지 않다 하여 비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두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그렇게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하기만 바라는 어리석음을 지닐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 어떤 것을 바꾸기를 원한다면 나의 어리석음을 자제해 보겠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키기 보다 내가 그들을 보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이 수행이며 지혜입니다. 항상 회를 내고 있는 나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에 예전히 화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야간자 스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진연임승을 하고 있습니다. 염승은 서원당에 앉아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없이 반복하여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시불공(時時佛供) 처처불공(處處佛供)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송하는 진언을 달리 다리니라고 말합니다. 다리니를 의역(意譯)해서 총지(總持) 억지(憶持)라고 합니다. 항상 잊지 않고 지녀서 염송하는 것이 진언다리니입니다. 바로 수행은 일상에서 진언다리니를 늘 염하는 데 있습니다. 진언다리니 뿐만이 아닙니다. 수행은 진언다리니를 한시라도 잊지 않고 앉으나 서나 움직이거나 말할 때에도 염송하는 것과 같이 늘 자신을 놓치지 않고 되돌아 보며 채찍질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념이 많으신 분이나 수행시 마음이 집중이 잘 안되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하고, 자신에게 계속 의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훨씬 더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수행이란 자신의 마음을 알고, 같고 닮아 그 마음으로부터 지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다는 것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기계와 디름없게 됩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는 지 모

르게 되면,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을 같고 닮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제어치 못하면 우리는 마음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에 노예가 되면 생각이나 감정들이 우리를 조정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더욱 고통스럽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을 닦는 것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며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수양할 때, 우리는 어리석은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행의 중요성은 자유로움을 얻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생각하고 있다면 바쁜 수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바쁜 수행이 되었을 때 바쁜 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밀교에서 말하는 ‘이몸 그대로 성불하는’ 즉신성불(即身成佛)입니다.

〈법경/법장원 연구원〉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 재단은 부처님의 자비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설립취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사회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종 사회복지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소외된 계층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의 공덕’을 실천하여 안정된 사회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노인복지사업

- 역삼 노인복지센터 운영
- 주간보호 사업
- 만성질환과 기능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낮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양기족과 노인들이 경제, 신체,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
- 재가복지 사업
- 지역의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발굴하고 경제, 정서적 서비스를 통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사업
- 은빛축제 :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마당
-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 55세 이상 고령자 취업알선

지역복지사업

- 지역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지역내 소년·소녀 가장 후원 결연사업
- 지역내 독거 노인 후원 결연사업
- 생활보호 대상자 후원 사업



자원봉사 및 후원회 사업

- 자원봉사자 상담 및 교육
- 자원봉사 지원 및 운영
-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 교실 운영

청소년복지사업

- 건강한 청소년 육성사업
- 청소년 문제 연구 및 상담사업
- 청소년 문화교실 운영
- 청소년 건강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캠프

노인 희망시설 건립 추진

- 아름다운 노후생활
- 안정되고 체계적인 노후보장
- 납골당 건립 추진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침사람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은 재단의 사회복지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집니다.

회원

일반회원 - 월 5천원(1구조) 이상
단체회원 - 단체명으로 월 5만원 이상
특별회원 - 50만원 이상 후원

후원금 납입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 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자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자로 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중생은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엊그제만 해도 나무들 사이에서는 낙엽들이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고 들녘에는 농부들이 추수하느라 바쁜 일손을 움직였던 것 같더니 오늘은 나무의 낙엽들은 하나 둘씩 떨어져 길바닥에 풍물로 있고, 들녘에는 농부들의 바쁜 일손은 보이지 않고 황량한 벌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렇게 세월의 흐름은 부지불식간에 흘러가고 있건만 사람들은 늙지않고 평생동안 살 것만 같이 탐욕으로 가득하여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복잡하고 바쁜 서울의 도심을 빠져나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영천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포항에 도착하여 시내버스를 타고 30분정도 달려가 동해바다에 출렁이는 흥해읍에 도착하니 한가로운 농촌풍경 속에 하늘은 늦가을 비가 내린 다음날이라 점이하게 맑은 모습으로 오는 나그네를 맞이하였고 초행길이라 흥해읍 도로변에서 내려 3분정도 걸어가니 넓은 공터에 기와집으로 선립사 사택과 서원당이 양옆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덧발에서는 배추와 무우가 소복하게 자라고 있었다.

선립사는 한문으로 착할선 설립으로 착한 사람들만 모여사는 곳으로 이곳에 들어오면 모든 중생은 부처님의 공덕을 입어 병고해탈을 이루고,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교화되는 곳으로 유명하다.

선립사의 유래

선립사는 총기 2년 포항시 흥해읍 흥성리에 한옥 건물을 임차하여 의창선교부로 개설하여 현재 기로스승인 불멸심 전수님이 초대주교로 재임하시면서 개척하였고 총기11년 현 주교인 보원정사, 심지장전수님이 주교로 임명되어 22년동안 선립사에서 교회를 하시고 계신다.

인지상정수순

어느덧 가을은 가고 입동이 지나 창교절을 앞두고 인지상정으로 몇 차 적습니다. 원정 종조님의 그 위대한 법통을 이어받아 일심으로 변치않은 특정종령님은 종조님 뜻을 수순하면서 종단발전과 스승의 도리를 항상 일깨워 주시고 선립사에 철따라 일년 두세번씩 방문하시면서 협소한 방에서 1박 2일



하지 않고 왕래하시고 기나긴 밤을 지새우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시던 수성님을 지켜보았다. 수행학적에 개천사에서 법을 배우고 수성님과 법상원 전수님께서 수행행진하시는 모습을 보았다. 삼년동안 개천사에서 같이 생활하시면서 보았던 것은 따뜻한 가정과 화합함이 항상 존재했고 진심한번 내시는 것 없으시고 언제나 북북히 인정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진정한 수행자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 저는 어떻게 하면 십분의 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하고 생각한 나머지 아침 일찍 일어나 개천사 뒤풀을 보니 바다의 검은 먼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나의 업도 저렇게 많은 때와 업장으로 가득차 있으나 하는 생각이 들어 자

좋을 때는 부처가 되고 기분이 나쁠 때는 중생이 되어 성불을 이룰 수 없다. 보배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수록 마음을 잘 다스리면 복도 짓고 보배를 가질 수가 있다. 내 마음의 보배는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치면서 수행할 수록 어렵고 힘들지만 마음을 다스리는 글을 반복하여 읽어보면 청정한 경지에 도달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

“엎드려 바라노니, 주인공아! 모름지기 결렬한 뜻을 일으켜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으로 속된 인연과 뒤바뀐 소견을 모두 버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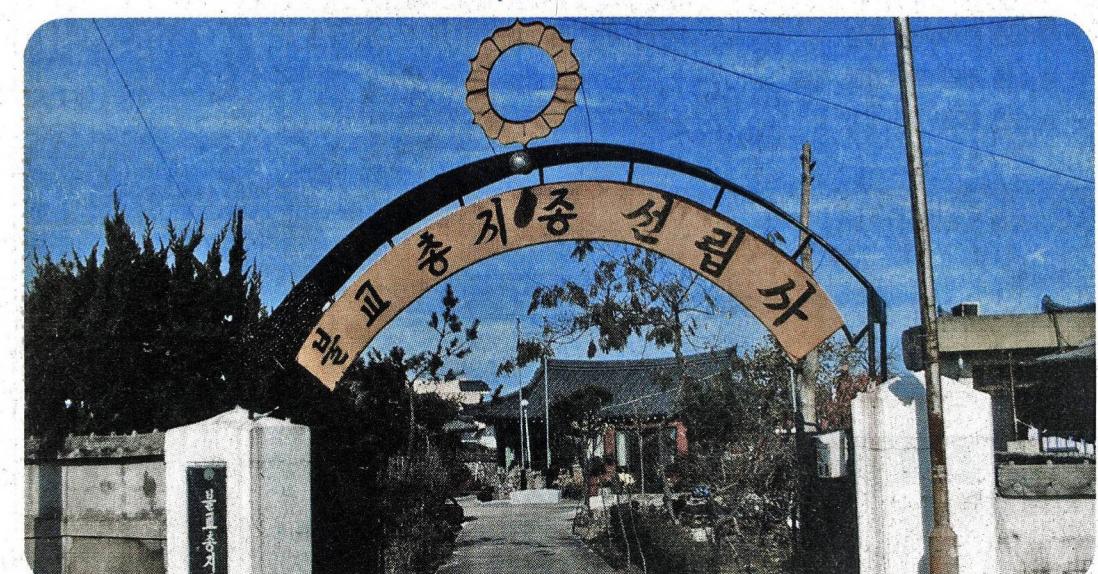
여기서 엎드려 바란다는 것은 지심정례(至心頂禮)입니다.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일깨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일깨우는 것인가? 결단과 정열이 깃든 의지, 기어코 성취하겠다는 마음을 일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내 마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속된 인연들, 번뇌망상으로 뒤바뀐 소견들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뒤바뀐 소견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네가지 사항을 들었습니다.



씨 쉬어 가셨다. 그러나 호화로운 호텔을 마다하고 불편한 곳에 머무른 뜻을 생각했을 때 일체 보살님들의 정성어린 보시금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종단화합이 절대 우선으로 종단의 앞날을 걱정하시며 제61회 춘계강공회를 앞두고 선립사를 방문하신 그 때가 생전에 마지막인 줄 몰랐다. 강공 후 토정님께서 열반에 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특정님에게 미숙한 마음이 일어났다.

이번 강공회에서 수성님께서 종령으로 추대되어 감격했고 법계 부처님도 인정했음을 알았다. 수많은 업적과 종단을 위하여 누구보다도 봄을 아끼지 않고 종단수습 때문에 대구에서 서울로 하루가 멀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이고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부정을 부정으로 인식할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인연이 모여 이룩된 현상은 독립자존의 것은 없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그 현상 또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또한 인연의 속성이다



세상 사람들은 영원함과 행복과 자유자재로움과 청정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영원함도 행복함도 자유자재로움도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청정함을 유지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무상할 뿐입니다. 나만의 자유 또한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상대적인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무너지면 나까지 무너지는 무아의 존재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을 어찌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 고(苦)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청정함을 추구하지만 육체는 근본적으로 청정한 것이 아니며 번뇌망상으로 가득한 마음 또한 청정하다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상·고·무아·부정한 인생살이건만 우리는 이를 긍정하고 받아들이기 전에 영원과 행복과 자유와 청정함을 추구합니다.

여기에서 전도, 곧 뒤바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삶은 더욱 고이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긍정이 앞서야 합니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면서 행복한 체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알고, 부정을 부정으로 인식할 때 새로운 길은 열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뒤바뀐 소견부터 버릴 것을 강조하셨고, 무상·고·무아·부정을 철저하게 긍정하는 수행법을 일러 주셨습니다. 아울러 이렇게 도를 닦아가면 언젠가는 무상·고·무아·부정을

이지 않는 멀고도 가까운 인연의 사슬이 엉클어진 실타래 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세상사 모든 것이 인연의 소치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문명의 발달로 멀기만 했던 지방과 나라들이 이제는 모두 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몇 달 몇 날을 가야했던 거리들이 놀랄 만큼 단축되었고 이제는 지구가 하나의 마을 즉 지구촌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먼 나라들도 비행기로 반나절에 해당하는 12시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바로 TV로 인터넷으로 세계의 뉴스를 방안에서 들여다보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무연(無緣)처럼 존재했던 세상 인연들이 모두 유연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와 세상은 가까운 한 이웃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부처님 말씀과 같이 유기적인 관계속에 있는 것입니다.

독단적인 존재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설령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이 삶에 먼 산속이나 무인도에서 혼자 뚫고 하더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완전히 절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을 빌 것도 없이 인간은 이 지상에 태어난 이상,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이 인연의 질긴 사슬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화두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인연이란

한마디로 원인과 조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 있는 온갖 현상들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즉 인연이 모여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연이 모여 이룩된 현상은 독립자존의 것은 없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그 현상 또한 사라져 버리고 마는 것이 또한 인연의 속성입니다.

인연이란 모든 존재가 그런 상태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원리가 인연입니다. 그에 비해 업이란 인간이 하는 행위에 의해 나타나는 힘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신구. 의의 삼업이라고 합니다. 신구의 삼업의 활동을 통해 생기는 영향력을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연과 삼업으로 사물이 생겨나고 그 삼업 때문에 과보 또한 생겨나는 것입니다.

보원 정사님과 심지장 전수님은

보원 정사님과 심지장 전수님은 불교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특히 보원 정사님의 어머니는 진각종 창종이로부터 진각종에 당겼으며 총지종이 창종된 후 총지종으로 개종한 후 자식을 정사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여 경주지역에서 남들보다 열심히 수행하였다.

이러한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보원 정사님과 심지장 전수님은 결혼을 하자마자 교회의 일선에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한 평생을 바치신 분으로 지금은 머리에 하얀 백발이 피어났다.

선립사 교도들에게 스승님들의 칭찬을 물어보니 하루 밤이 지날 지라도 칭찬을 다할 수가 없다면서 스승님들에 대한 칭찬과 자랑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시끌지역인 흥해읍에서 보원 정사님과 심지장 전수님은 밀법을 흥포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포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몇 년전에는 흥해읍에서 가장 많은 교도들이 모일 정도로 법력이 대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시끌지역이라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고 나이가 많은 보살들은 이승의 인연을 다하고 저세상으로 떠난 교도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현하였다. 스승님들에게 시끌에서 교화하기 힘드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힘드는 일이 있겠는가?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비록 물질적으로 도시처럼 풍족하지 않지만 마음만은 항상 풍요롭게 생활하며 교도들이 병고해탈을 해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각자가 소원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어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승직자로서 보람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교도와 중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하였다.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1동 197
전화 : 054)261-0310

